2025년 12월 2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악재 우위 환경에서 벗어나는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 3분기 성장률 및 11월 산업생산, 한국 12월 수출(~20일) 등 주요 지표, 2) AI주 관련 뉴스플로우, 3) 연말 국내 배당주 수급 변화, 4)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회복력 이어 나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920~4,200pt).

이처럼 이번주(12월 4주차)는 12월 2~3주차와 달리,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시장의 피로도와 대응 난이도를 1~2주전보다 낮춰줄 것으로 판단. 물론 크리스마스 휴장 및 연말 폐장을 앞두고 증시 전반적인 거래가 한산해지는 편이기는 함. 하지만 상기 언급한 것처럼 AI, 반도체, 배당 수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개별 재료들은 상존하고 있기에,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지수 회복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제를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19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주중 예정된 빅 이벤트(비농업고용, CPI,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오라클 쇼크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속 AI주 투심 진정, 11월 CPI 둔화 등에 힘입어 투자심리 개선되며 양 지수 낙폭 회복한 채 마감 (KOSPI -3.52%, KOSDAQ -2.35%)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 주 금요일 브로드컴,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미국 AI주 주가 폭락 여파 속 반도체 등 대형주 중심으로 급락세로 출발. 전반적으로 주 초반에는 주중 예정된 빅 이벤트(비농업고용, CPI, 마이크론 실적 등)을 앞두고 관망세 짙어짐.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환율 안정화 개입 발언에도 1,480원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 압력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

블루아울(Blue Owl) 캐피탈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투자 철회 보도 등 오라클 발 AI 노이즈가 지속되며 미국 AI 관련주 주가 변동성은 지속되는 흐름.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시장의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매출액 136억 vs 컨센 129억, 조정 EPS 4.78 vs 컨센 3.95). 특히, 구조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자신감을 언급하며 시장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는 차분기 가이던스 발표(FY26 2Q 매출액 가이던스 187억 vs 컨센 143억, EPS 8.42 vs 컨센 4.71)하며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주가는 8%대 급등세 시현.

한편, 주 후반 발표된 미국의 11월 CPI는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YoY 헤드라인 2.7% vs 컨센 3.1%, 전월치 3.0%, 코어 2.6% vs 컨센 3.0%, 전월치 3.0%). 다만, 금번 CPI 수치 둔화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일시적 통계 왜곡(CPI 비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 관련 핵심 항목 변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상당 부분 기인. 그럼에도 마이크론 호실적 속 AI 관련주 반등, 11월 CPI 진정세 등이 주 후반 국내증시 투심 개선에 기여.

업종별로 섬유/의류(+3.75%), 오락/문화(+2.77%), 음식료/담배(+0.94%), 통신(+0.65%), 제약(+0.4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건설(-6.61%), 금속(-5.67%), 운송장비/부품(-5.13%), 전기/전자(-4.62%), 기계/장비(-4.19%) 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3조 1,228억원)은 증권(+238억원), 운송/창고(+135억원), 통신(+36억원), 종이/목재(+18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3,776억원)은 오락/문화(+1,266억원), 제약(+991억원), 제조(+76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2 월 22 일	월	한국	수출 (~20 일까지, YoY)	12 월	-	8.2%
			수입 (~20 일까지, YoY)	12 월	-	3.7%
		미국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11 월	-0.2	-0.12
12 월 23 일	화	미국	**경제성장률 (QoQ)**	3 분기	3.1%	3.8%
			근원 PCE 물가지수 (QoQ)	3 분기	-	2.6%
			개인 실질소비지출 (QoQ)	3 분기	-	2.5%
			산업생산 (MoM)	10 월	0.1%	0.1%
			내구재 주문 (MoM, 잠정치)	10 월	-1.4%	0.5%
12 월 24 일	수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2 월	91.4	88.7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12 월	-	-15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12 월	-	112.4
		공개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휴장	**미국 (한국시간 오전 3 시 조기폐장)**			
12 월 25 일	목	일본	주택착공건수 (YoY)	11 월	0.6%	3.2%
		휴장	**미국, 유럽, 한국, 홍콩 등 (성탄절)**			
12 월 26 일	금	일본	도쿄 CPI (YoY)	12 월	2.3%	2.7%
			도쿄 근원 CPI (YoY)	12 월	2.8%	2.8%
		휴장	**유럽, 홍콩 등 (성탄절 휴가)**			
		증시	**한국 배당기준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3분기 성장률 및 11월 산업생산, 한국 12월 수출(~20일) 등 주요 지표, 2) AI주 관련 뉴스플로우, 3) 연말 국내 배당주 수급 변화, 4)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회복력 이어 나갈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3,920~4,200pt).

19일(금) 미국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발 수급 변동성에도, 마이크론(+7.0%) 신고가 경신, 엔비디아(+3.9%)의 중국향 H200 판매 기대감, 오라클(+6.6%)의 틱톡 미국 법인 계약 완료 소식 등 AI주 전반에 걸친 훈풍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4%, S&P500 +0.9%, 나스닥 +1.3%).

최근 주식시장은 2주 연속으로 대형 이벤트를 잇따라 치르는 과정에서 변동성에 노출됐던 상황. 일례로, 오라클(실적 부진,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및 철회 논란 등), 브로드컴(마진 둔화, AI 매출 가이던스 불확실성 등)발 실적 이벤트가 중립 이하 결과로 나오면서, 주도주인 AI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급락을 맞기도 했음. 또 12월 FOMC 금리인하 이후에도 매크로 불확실성(내년도 연준 기준금리 향방 등)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한동안 악재 우위의 환경에 직면했던 실정.

그러나 지난주 후반 슈퍼 서프라이즈를 시현한 마이크론 실적, (인위적인 데이터 왜곡 논란이 있지만) 인플레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았던 11월 CPI 이후 증시 내 부정적인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는 모습.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대형 AI주들 뿐만 아니라, 샌디스크(+8.3%), 코어위브(+22.6%), 오클로(+7.1%) 등 낸드, 네오클라우드, 원전과 같은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일제히 주가 반등을 시현한 것도 같은 맥락.

스페이스 X의 IPO 이슈로 한국, 미국 증시에서 우주 관련 테마주들로 신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역시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을 보여주는 대목. 더 나아가, 12월 이후 주가 조정을 통해 한동안 빈번하게 제기됐던 주식시장의 진입 부담(=밸류에이션 부담, 소수 업종 쏠림 현상 심화 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이번주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3분기 성장률, 미국 11월 산업생산 및 신규주택판매, 한국 12월 수출(~20일) 등 지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12월 FOMC, 11월 고용 및 CPI 등 메이저급 이벤트를 겪었음을 감안 시, 상기 지표의 증시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들 지표보다는 주중 전해지는 AI주들 관련 뉴스플로우 자체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는 26일(금) 배당기준일(=배당부 종가일)을 앞두고 배당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 이런 측면에서 은행, 지주, 증권, 자동차 등 고배당 및 배당성장주들이 주중에 여타 주식 대비 성과 우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이미 11월 말부터 시장에 노출된 재료이기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 공식적으로 공개된 만큼, 주 초반에는 코스닥 내 대형주(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주가 상승 탄력 및 수급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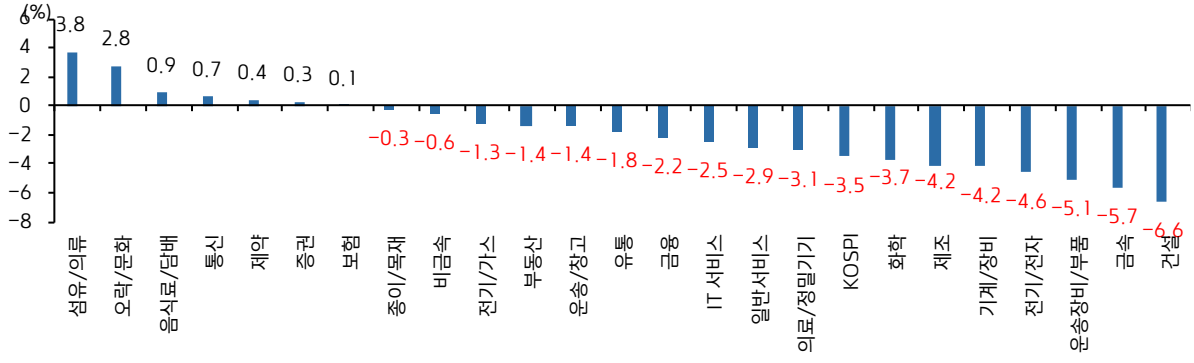
이처럼 이번주(12월 4주차)는 12월 2~3주차와 달리,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시장의 피로도와 대응 난이도를 1~2주전보다 낮춰줄 것으로 판단. 물론 크리스마스 휴장 및 연말 폐장을 앞두고 증시 전반적인 거래가 한산해지는 편이기는 함. 하지만 상기 언급한 것처럼 AI 및 반도체 투심 개선, 배당 수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등 개별 재료들은 상존하고 있기에,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지수 회복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제를 주중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4,020.55	0.7	-3.5	2.3	67.6
대형주	4,135.56	0.7	-3.7	2.0	73.1
중형주	3,799.66	0.6	-2.9	2.5	43.0
소형주	2,560.93	0.3	-1.0	5.5	22.3
코스피 200	568.40	0.5	-3.3	2.9	78.8
코스닥	915.27	1.6	-2.4	5.0	35.0
대형주	2,239.24	1.5	-3.5	1.4	38.8
중형주	871.78	1.9	-1.9	10.6	47.8
소형주	2,566.79	1.2	-1.4	5.5	15.2
코스닥 150	1,533.99	1.5	-3.4	0.2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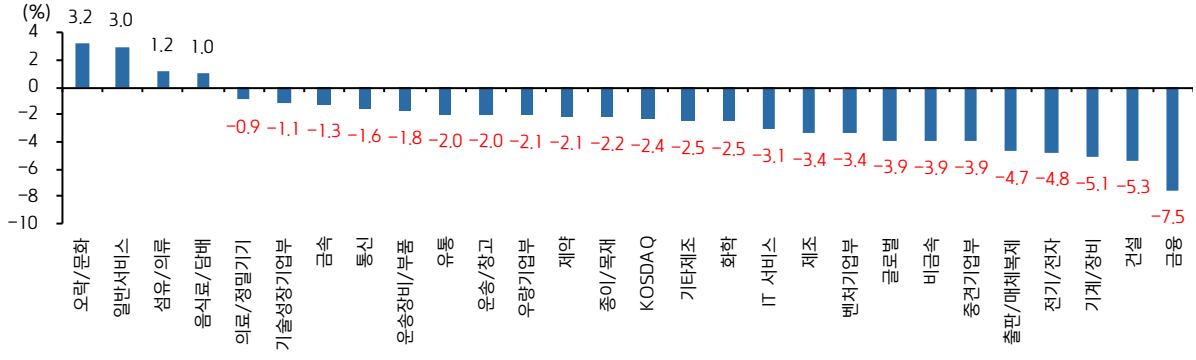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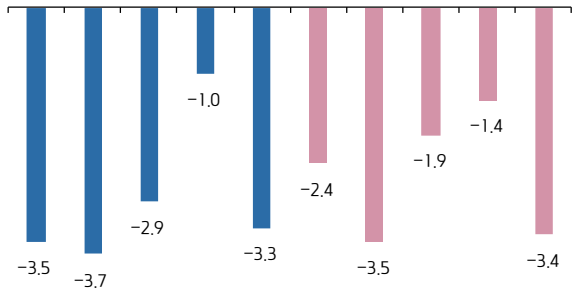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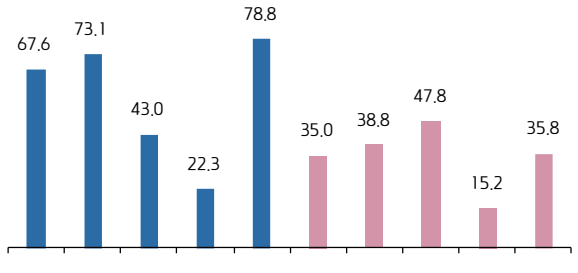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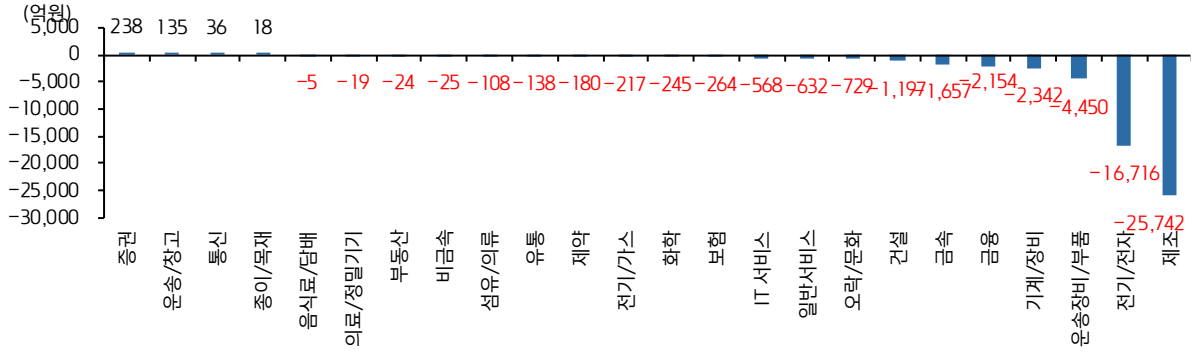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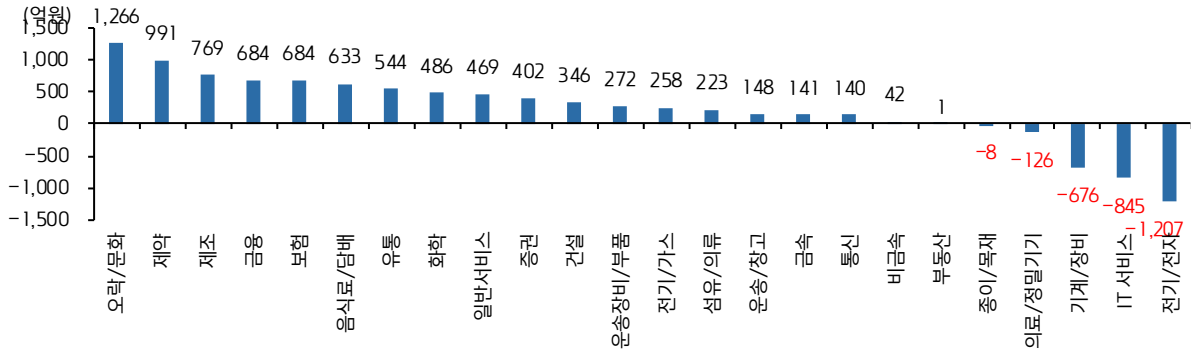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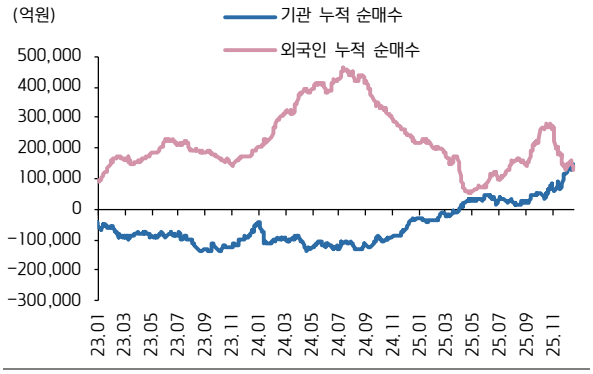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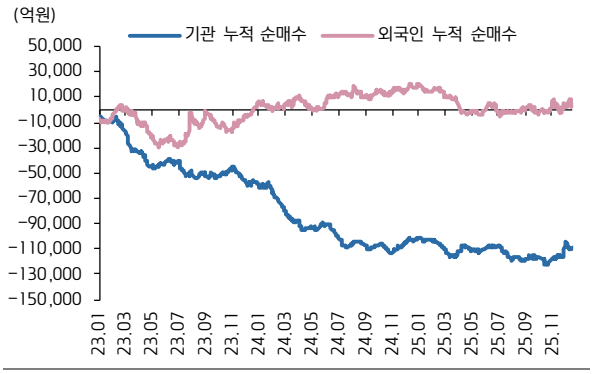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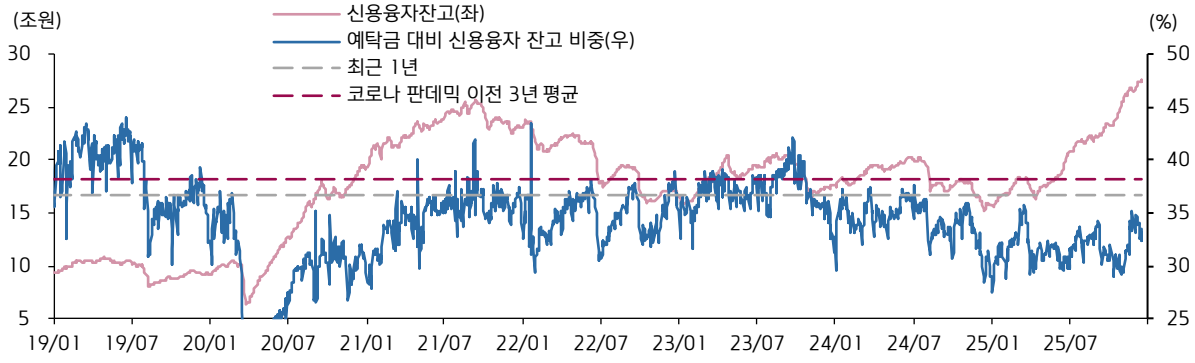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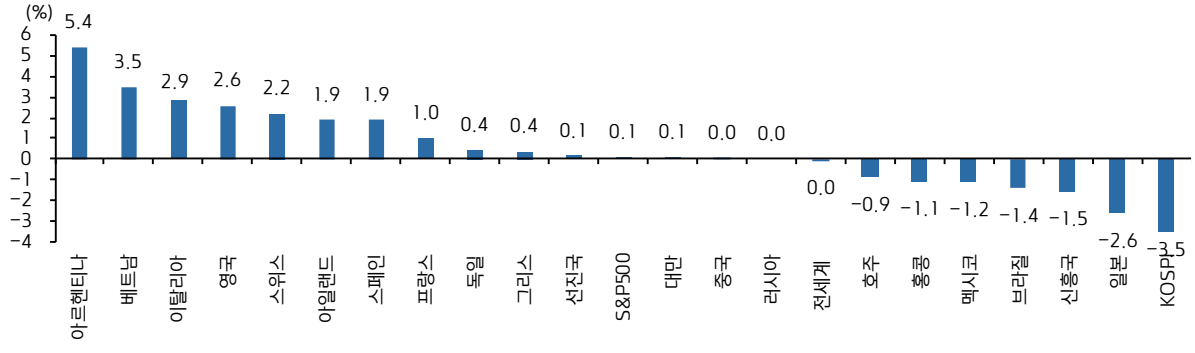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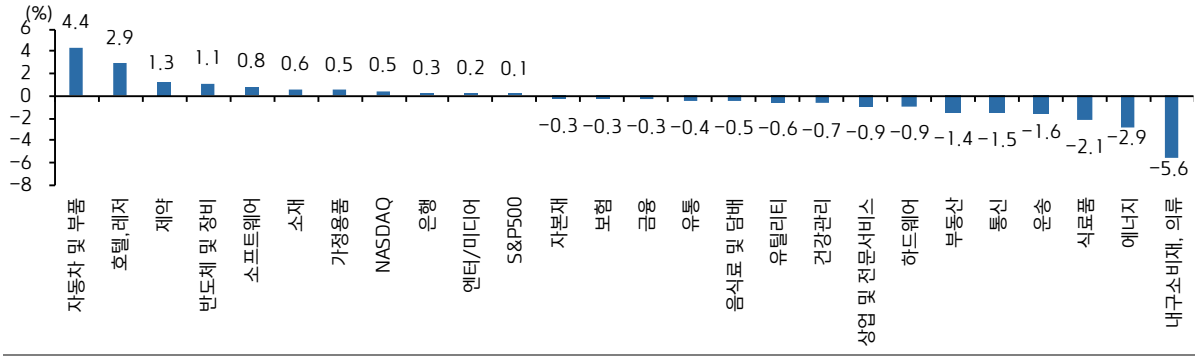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